

고통도 좋게 만드는 것이 수행

지극히 쉬운 도리였지만, 이론과 실재는 다르지 않은가? 마음 속 한 줌 앙금마저 떨치기 위해 나그네가 다시 물었다.

“스님, 중생은 누구나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을 좇으려 합니다. 세상에는 괴로움이 가득한데 어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좋은 날입니다. 좋은 생각·마음으로 좋은 날을 만들겠다고 하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모두 좋은 것이예요. 고통까지도 좋은 날로 만들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수행입니다.”

“좋은 생각과 마음으로 이루어 고자 하면 이뤄진다”는 정현 스님의 말은 굳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아니어도 최근 베스트셀러였던 <시크릿>의 핵심이기도 하다. “마음만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던 책.

스님은 마음만 먹고 화가가 된 경우이다. 그림을 잘 그리지도 좋아하지도 않았던 스님이 붓을 든 것은 20년도 채 안됐다. 스님은 “그저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뿐이었다.

정현 스님은 참회와 중생교화를 위해 ‘날마다 좋은 날’ 운동을 생각했고, 그림을 그렸다.

“승복 입고 빛은 과오를 참회하고, 부처님 밥 먹고 살면서 세상에 좋은 일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그림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산중에 있지만 내 그림은 사람들 손에 들려 세상을 돌아다니고, 곳곳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니까요.”

정현 스님이 나눠주는 선화 ‘날마다 좋은 날’은 스님이 불자들에게 전하는 삶의 화두이고, “올바른 정신으로 바르게 살라”는 경책이었다.

스님은 10만 장의 ‘날마다 좋은 날’을 선화로 그려 대중에게 전해왔다. 10만 장의 그림이 중생의 손마다 들려지고, 벽에 걸리기까지 무려 11년이 걸렸다. 손님이 찾을 때마다 10번이고 ‘날마다 좋은 날’이 그려진 그림을 손에 들려 보았다.

“나는 산 속에 있으니까 대신 가져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심부름시키는 것이지요. 하하하”

정현 스님은 18세에 친구와 지리산 화엄사를 찾았다가 우연하게 출가했다. 스님은 은사인 전

강 스님을 시봉하며 한참을 살았다.

“은사스님은 수행에 철저한 분이셨어요. 전강 스님은 치열하게 공부하다 상기돼 머리까지 터졌는데, 그때 스님 머리 생김 흉터를 가리려고 머리에 까만 칠을 해드린 적도 있지요.”

밤이면 남 몰래 일어나 새벽까지 밀행정진하던 은사스님을 뒤통에 정현 스님은 평생

정현 스님의 그림은 선화라 불린다.

“선하는 사람이 그러니 선화라 불리는 것이겠지만, 세상에 선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도둑질마저도 선입니다. 도둑질조차도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깨닫는 것이 선이니까요.”

스님은 집착 없는 삶을 강조했다.

“개신교에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했다’는 생각조차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현 스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함이 있는 마음, 집착과 욕망으로 진단했다. “무엇이든 했다는 마음조차 할 수 있다면 어떤 괴로움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스님은 “잘하고 못한 것을 옮겨 보고 잘못된 것은 누우치는 삶이 중요하다”면서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이 참회의 한 방법이 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벽암록> 제 1칙에서 답마 스님이 ‘모른다(不識)’고 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말한 것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에는 세해가 되면 스님이 신도 집에 찾아가는 풍습이 있다. 세해 첫 손님으로 스님을 맞으면 집안의 액운이 사라지고 복이 찾아온다는 믿음 때문이다.

일본 임제종의 잇큐 스님(一休: 1394~1481)이 어느 설날 신도 집을 찾았을 때이다. 스님의 지팡이 끝에 달린 해골을 보고 신도는 깜짝 놀랐다.

“스님, 오늘같이 좋은 날 어찌 시려고 망측스럽게 해골을 갖고 찾아오셨습니까?”

잇큐 스님이 말했다.

“오늘이 어째서 좋은 날인가? 설이 자꾸 지나 가면 마침내 모두 해골이 될 터인데, 죽는 것이 그렇게도 좋은가? 사람들은 만나면 ‘요즘 살아가는 재미가 어떠하냐?’고 묻지만 그 재미란 ‘죽어가는 재미’에 불과하다. 이를 생각하면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일 아닌가?”

하루하루 시간은 간다. 매일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되려면 당장 수행하고 불 일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2. 원불교 조전권 종사

원불교 공무원(空院團) 조전권(曹專權) 종사(宗師)는 1910년 1월 4일 전북 김제군 금산면 구월리에서 출생했다. 조 종사가 원불교에 뜻을 두게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부친인 조송광(宗光)은 1902년 27세 때 기독교를 신앙해 5년 만에 ‘구봉교회’를 설립했다. 장로인 부친은 43세에 원불교에 귀의했다. 장차 전도사가 되려했던 조전권 종사는 율면서 어찌된 일이나고 항변했다.

예수님을 진경했다는 부친의 인도로 원불교 익산총부를 찾은 1927년 10월 20일, 17세 소년은 원불교 사상 첫 정녀교무로 출가(出家)하여 조종사(曹宗師)라는 별명(別名)을 얻었다. ‘세계 대권을 잡고 일체 중생의 어머니가 되라’는 뜻이었다.

조 종사는 1928년 7월 서울교

조 종사와 나와의 인연은 1960년 부산에서 이뤄졌다. 부산 누림 집에 가니 “원불교에서 도통한 여자가 와서 강도(講道)를 하는데 참으로 잘 한다”고 했다. 초량 교당으로 찾아가니 조 종사가 “어서 오십시오. 어디서 많이 봐온 것 같습니다”고 인사했다.

내가 “이리본부에서 보았던 초

때문에 본성을 잃는 경우가 있어 정신을 수양하고 사리를 연구해 취사선택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패가망신하게 되므로 대종사는 자력양성과 자자분위, 타자녀교육, 공동자생배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원불교 경전인 <대종경>이고 <예전>인 것입니다.”

조 종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전권 종사(왼쪽에서 세 번째)는 평생을 중생교화에 힘썼다.

원불교 첫 정녀교무로 출가서원... 교역자 양성에 심혈

당 공양주가 되어 4년 동안 밥 짓고 청소하는 일 등 묵은 일을 했다. 1931년에는 익산총부 순교로 부임해 여러 교당을 순교하며 교화에 심혈을 쏟았다. 21세 되던 1935년 12월 29일에는 남부민교당 교무로 부임해 유창한 설교로 많은 교도들을 감동시켰다. 1938년에는 초량교당 교무로, 1939년에는 산지방 교당으로 부산지역 교화에 정성을 기울였다.

한국전쟁을 눈앞에 둔 1950년 5월, 그는 14년을 자리했던 부산 교화현장을 떠나 익산총부 교정원 교무부장으로 발탁됐다. 전국 방방곡곡의 교당을 순례하며 설법을 하고 교리강습을 열어 교화를 지원하며 새 회상의 교세를 소리 없는 요원의 불길로 확산시켰다. 1963년에는 동산선원장을 맡아 중단 교육의 책임자로서 8년 새벽좌선을 비롯해 선원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교역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연입니다”고 하니 깜짝 놀라며 반겼다. 조 종사의 강연은 많은 이들이 원불교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다. 인사 후 강연이 시작됐는데 초량교당 내외가 발 들여 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찼다.

“원불교는 1916년 전남 영광 백수면 길동리 박종빈(소태산) 대종사께서 일원상의 원리를 깨닫고 창종한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그 연원을 불교에 두고 있으나 외면상 승배의 대상이 다르고 교단운영에 있어서도 재래 사찰 운영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천지·부모·동포·법률의 은혜를 입고 있으니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갚도록 하되 원불교의 취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불교의 <금강경> <42장> <반야심경> <현자오복덕경> <업보차별경> <수심결> <목우십도송> <휴휴암좌선문>을 통해 자기 수행을 했습니다. 사람은 육신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니 보고 듣는 자들이 잠깐도 눈을 떼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달빛 같은 얼굴에 검정치마 흰 저고리를 입고 월기 발랄한 몸짓으로 대중을 위압하니 그에 절복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불교가 2500년을 넘는 종교지만 독선기신(獨善其身)으로 세상을 보살피는 일에 소홀해 원불교 같은 새 종교가 각광을 받게 했다는 한탄도 나왔다.

나는 3일 간 강의를 듣고 느낀 바가 많아 이후 조 종사와 특별한 관계로 교류했다. 1976년 5월 24일 익산총부 금강원에서 66세를 일기로 열반할 때까지 조 종사는 교회의 고평배를 누치지 않았다.

원불교 사상 첫 정녀 출신으로 여자회상의 문을 열은 조 종사의 생애는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텝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 범당용, 외곽용
- ▶ 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할라멘트로 빛이 윤택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정사초롱 및 초롱 길대

연등 (정품)

범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